

KIA 박재현, 시련 이겨내야 진짜 주전 된다

가장 뜨거웠던 타자가 가장 차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KIA타이거즈 외야수 박재현이 프로 데뷔 2년 차에 본격적인 슬럼프와 마주했다. 5월까지 팀을 대표하는 '히트상품'으로 불리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까지 발탁됐지만, 6월 들어 극심한 타격 부진에 빠지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박재현은 지난 1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최근 10경기 타율은 0.059. 6월 전체 성적도 12경기 42타수 4안타 1타점 타율 0.095에 머물고 있다. 이 기간 홈런과 도루 성공은 하나도 없었고 삼진만 14개를 기록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성적이다.

박재현은 5월 25경기에서 130타수 34안타 7홈런 20타점 8도루 타율 0.330을 기록하며 KIA 타선의 새로운 활력소로 떠올랐다. 4월 말부터 리드오프를 맡은 그는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 예상 밖의 장타력까지 선보이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다.

그 활약은 태극마크로 이어졌다. 박재현은 지난 11일 발표된 2026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에 포함됐다. KIA에서는 김도영, 성영탁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대표팀 승선의 기쁨도 잠시, 방망이가 급격히

식고 있다. 3할 타율을 넘나들던 타격감은 자취를 감추고, 홈런과 장타 모두 크게 감소했다.

KIA 벤치도 고민이 깊다. 이범호 감독은 최근 박재현을 두 차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며 휴식을 부여했지만, 결국 다시 리드오프로 기용하고 있다. 현재 팀 내에서 박재현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마땅치 않은 데다, 무엇보다 스스로 슬럼프를 극복하길 바라는 신뢰가 담겨 있다.

가장 큰 부진 이유는 체력 저하로 꼽힌다.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스타

소화하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야 내가 1번 타자를 할 수 있는 선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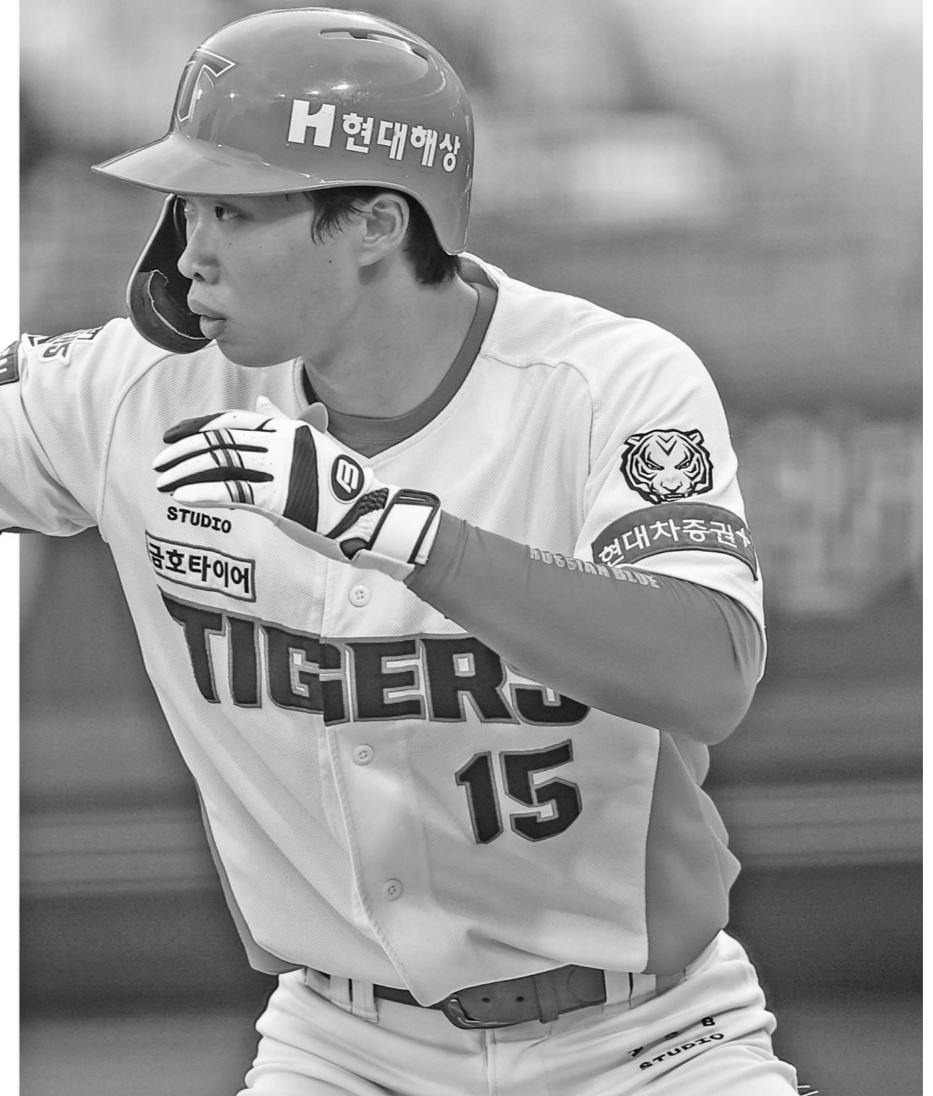
그 말처럼 지금은 진짜 시험대다. 프로 선수라면 누구나 성장 과정에서 슬럼프를 경험한다. 상대 팀의 집중 분석, 체력 저하, 풀타임 시즌에 대한 부담 등은 유

망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이다. 박재현 역시 처음 마주한 큰 벽 앞에서 있다.

더욱이 그의 반응은 팀 성적과도 직결된다. 현재 KIA는 34승 1무 31패로 4위를 달리고 있지만 두산과 한화를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지난주 팀 타율 0.205, OPS(출루율+장타율) 0.592로 리그 최하위에 머문 KIA 입장에서는 리드오프 박재현의 부활이 절실하다.

박재현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팀을 대표하는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5월 맹타 앞세워 대표팀 승선...6월 타율 0.095 부진

리드오프 중책 속 첫 풀타임 시즌·체력 부담 시험대

일인 만큼 생애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르며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재현은 기대주에 머무르며 58경기 출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스프링캠프를 거쳐 완전히 달라졌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많은 경기를 뛰었다.

박재현 역시 일찍부터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봤다. 그는 지난달 5일 한화전 4안타 경기 이후 "아직 1번 타자라는 확신은 없다. 여름도 있고, 타석도 많이

더욱이 그의 반응은 팀 성적과도 직결된다.

현재 KIA는 34승 1무 31패로 4위를 달리고 있지만 두산과 한화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지난주 팀 타율 0.205, OPS(출루율+장타율) 0.592로 리그 최하위에 머문 KIA 입장에서는 리드오프 박재현의 부활이 절실하다.

박재현이 슬럼프를 이겨내고 팀을 대표하는 주전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승마협회 소속 이정우 대통령기 고등부 '제패'

광주승마협회 소속 이정우(광주고 3년)가 전국 승마 무대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승마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이정우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장애물 경기 120클래스(Class)에서 고등부 1위와 통합 1위를 차지했다.

앞서 2026 춘계 전국학생승마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던 이정우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전국대회 2관왕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정우는 자신의 파트너 말인 '차코레시아'와 함께 출전해 무감점으로 54.18초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동호인부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선수가 함께 경쟁한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을 세우며 통합 1위에 올라 의미를 더했다. 우승과 함께 메달과 훈련보조비 125만원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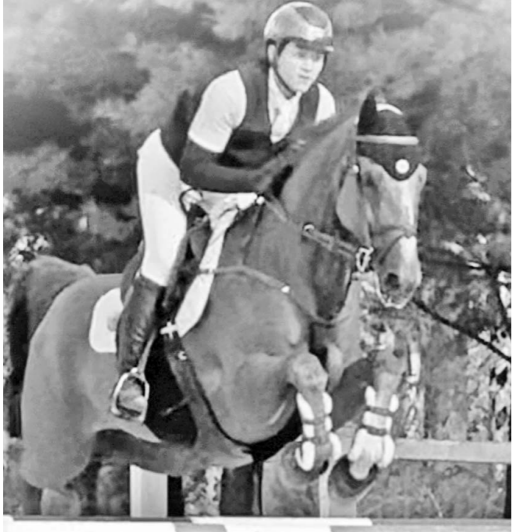
120클래스는 높이 120cm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종목으로, 장애물이 떨어질 경우 4점이 감점되고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점의 감점을 받는다. 정확성과 스피드를 모두 갖춰야 하는 고난도 경기다.

이정우는 이번 대회에서 120클래스 우승뿐 아니라 110클래스 고등부 3위, 130클래스 고등부 2위에도 오르며 뛰어난 기량을 입증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취미로 승마를 시작한 이정우는 다른 선수들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전문 선수의 길에 들어섰다. 우수한 지도자의 체계적인 훈련과 광주승마협회의 지원 속에서 실력을 키워온 이정우는 올해 들어 각종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차세대 승마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정우는 "이번 우승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최현석 코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호흡한 파트너 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더 높은 무대에 도전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대구 체육인 한자리에...달빛동맹 교류대회

19~20일 광주서...선수단 240명

검도·배구·볼링·족구 4개 종목

2038 AG 공동유치 밀거름 기대

광주와 대구 체육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광주시 일원에서 '2026 달빛동맹(광주-대구) 스포츠 교류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와 대구에서 각각 120명씩 총 24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광주체육회관과 빛고을체육관 등에서 검도, 볼링, 배구, 족구 등 4개 종목 경기를 펼치며 우정을 나누고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는 광주와 대구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체육 교류 사업이다. 지난 2013년 광주에서 열린 '달빛 야구 대전'을 시작으로 양 도시가 해마다 개최지를 번갈아 맡아 온 영하고 있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특히 이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쟁을 넘어 영·호남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광주와 대구가 함께 추진 중인 2038 하계



지난해 대구 일원에서 열린 '2026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 환영연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 선수단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검도 종목에는 조선대학교 선수단과 이연지(국대검도관) 등 동호인 16명이 출전한다. 배구는 광주체육 배구팀과 광주선발 동호인 등 29명이 참가하며, 볼링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동호인 23명이 나선다. 족구는 50대부와 60대부 3개팀, 16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광주와 대구가 진정한 상생 파트너 관계로 더욱 발전하고 달빛동맹이 한층 견고해지길 바란다"며 "광주를 찾은 대구 선수단이 좋은 추억을

만들고, 양 도시 체육인들이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는 선의의 경쟁과 우정을 바탕으로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며, 양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전남 조정, K-water 사장배 '금빛 물살'

광주체고, 여자부 종합우승

전남, 금 1·은 2·동 2 수상

광주·전남 조정 선수단이 전국 무대에서 잇따라 메달을 수확하며 지역 조정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노효립(광주체고)은 최근 전북 군산 금강하구둑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제23회 K-water 사장배 전국조정대회' 18세이하부 싱글스킬에서 8분 44초53의 기록으로 조서연(부산체고·8분51초 10)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지영과 이수아(이상 광주체고)는 여자 18세 이하부 경량급 더블스킬 결승에서 8분24초95를 기록, 총주여고(8분39초51)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전지민, 권지영과 함께 출전한 쿼드러플스킬에서도 7분17초48을 기록하며 서울체고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K-water 사장배 전국조정대회' 여자 18세 이하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체고 선수단.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이로써 광주체고는 여자 18세 이하부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는 남자부에서도 입상 행진을 이어갔다. 강한경과 박준호는 남자 18세 이하부 더블스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김영민·김준영과 출전한



'K-water 사장배 전국조정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장성군청, 장성하이테크, 문항고 선수단.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쿼드러플스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영민과 김준영은 경량급 더블스킬에서도 동메달을 보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서에서는 여자 일반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김은유·김정민 조는 여자 일반부

더블스킬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전남 선수단 역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

가장 눈에 띈 선수는 윤담인(문항고)이다. 윤담인은 여자 18세 이하부 경량급 싱글스킬 결승에서 9분10초62를 기록하며 경쟁 선수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하이테크고 형제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임서우는 남자 18세 이하부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동생 임서준과 함께 출전한 무타페어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실업팀 장성군청 또한 저력을 보여줬다. 김미수·이수빈 조는 여자 일반부 더블스킬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이수빈은 여자 일반부 싱글스킬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2개 종목에서 활약을 펼쳤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조정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며 "우수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조정을 선도하는 핵심 전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